

‘산불끄는 앵무새’ 처럼 작은일부터 열심히...



향기
도반의

불자로서 향기롭고 지혜롭게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경기도 연천 향기모임 회장 박미영(50)보살은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한다.

박 보살은 80년대 전남 장흥 관산고에 불교학생회를 창립한 남편의 영향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그뒤 남편을 따라 90년대 초반 수원을 거쳐 연천으로 이사를 왔다. 수원에 살 때는 인근 사찰 일요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나 연천에서는 당시 일요법회를 봉행하는 곳이 군법당 뿐이었다. 그래서 인연을 맺은 사찰이 바로 5사단 통일 광복사. 군법당이지만 드물게 불교대학이 개설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불교를 배웠고 일요법회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군포교의 어려운 현실도 접하게 됐다. 초코파이 하나에 종교를 바꾸는 현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93년 불교대학 동기들과 군법당을 지원하는 자비회를 만들었다.

"연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28사단 예하 17개, 5사단 예하 15개 등 50여개의 군법당과 10여개의 민간 사찰이 있습니다.

90여 회원들 매월 1만원씩 회비 모아 군법당 지원 5주에 한번 수계법회 열고 음식 만들어 나눠주기도 불우청소년 교복 지원 등 사회복지 운동에도 앞장

군법당 후원이 절실하다는 걸 알고부터 불교 미래를 위해 지원해야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불자 몇명과 함께 우선 5사단 예하 군법당만이라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자비회를 만들었습니다.

98년 자비회는 이름을 '향기모임'으로 바꾸었다. 향기모임은 '향기롭고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불자들의 모임'의 줄임말. 연천지역 불자 90여명의 회원들이 매월 1만원씩의 회비를 내 군법당에 필요한 초코파이, 음료수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한때는 약 30개 법당을 지원했으나 최근 조계종 포교사단 등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어 지금은 처음 군에 들어와 불교를 접하는 5사단과 28사단 신병교육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5주에 한번씩 봉행되는 수계법회에는 햄버거 등 장병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준비해 직접 나눠주고 있고 5사단 신교대 법당, 정수 포교당, 육하 포교당, 백

지역 군법당의 '어머니' 박미영 향지모임 회장



박미영 보살은 격월로 개최되는 향지모임 법회를 주관하며 신심을 기운다.

련사 등 지역 군법당 불사에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힘을 보태고 있다. 박 보살은 벌써 13년째 지역 군법당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매주 지역 군법당을 찾아 법회를 지원하고 있

서로 서로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불교와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보살은 최근 지역 사회 운동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향지모임 회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2000년부터 지역 지역내 소년소녀가장과 독거어르신을 돕고 있다. 읍사무소 등의 추천이 아닌 회원들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어르신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매년 10여명을 선발해 현금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또한 3년전부터 중학교에 입학하는 불우청소년들을 매년 3명씩 선발해 교복을 맞추어 주는 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교복 한 벌이 30만원정도여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불우청소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다행히 향지모임 회원 가운데 교복가게를 운영하는 보살이 있어 원가로 후원을 받아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선발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도 한두번에 그치겠지 했지만 박 보살의 원력과 향지모임 회원들의 단합된 신심이 지금까지 이같은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중병이나 군법당에 나왔던 장병들이 전역을 해 향지모임을 찾아올때 가장 행복하다는 박미영 보살. 앞으로 향지모임의 후원자를 대폭 늘려 마음껏 군법당을 돕고 싶다는 말 속에 향기와 지혜가 녹아 있었다. 박 보살은 향지모임 회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연천/글=김두식 기자·사진 박재원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삼화총림

지장기도도량 백화사 추모불사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올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귀한 분들 사후에도
품격있게 부처님의 품안에서
자화사리로 모십니다.

자화사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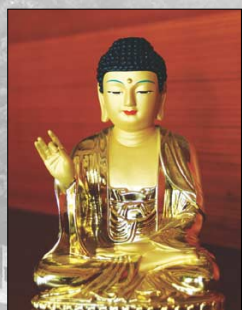
사리란 수행의 결정체입니다.
큰 스님들 열반시 다비석 후
승과하여 모셔집니다.

일반인들도 고온 처리방법을 통하여
영동한 결정체를 승과합니다.
구슬과 보석형태로 부처님 몸속에 모셔집니다.



삼화총림 백화사는 그 동안 불보살님들의 가피와 모든 불자님과 대중스님들의 정성으로 창종 3년 만에 사찰부지 대지 9,000평과 임야 15,000평, 대웅보전, 요사채 및 지장전이 본 종단에 기증 되었습니다. 이에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불국정토를 이루어 불자님께서는 범음을 전하고 중도 스님들은 수행 공간으로 활용하는 참 도량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불사유형



아이티 부처님 · 지장보살 복제품 (법당안치)

자화사리를 아이티 부처님 · 지장보살님 복제품에 직접 안치합니다. 부처님, 보살님께서 조상님들 양왕이 꿈에 안고 계십니다.



육지장보살 형 (연화대 하단 안치)

중생들 6도의 윤회에서 구제하여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지장보살님께 진족·가족을 함께 안치할 수 있습니다.
• 안치능력: 가족 문중 가능
• 높이: 210 Cm • 재질: 천연화강암
• 특징: 연꽃 무늬난에 입구를 통해 평안



부도탑 형 (연화대 하단 위치)

큰 스님의 부도탑 형식으로 진족·가족 모두 평안한 안치처가 될 것입니다.
• 안치능력: 가족 문중 가능
• 높이: 210 Cm • 재질: 천연화강암
• 특징: 탑형태로서 기원부
해대석입구를 통해 평안

연화부수형 천하명당 지장기도도량 여주 보금산 백화사로 모십니다

백화사 추모불사의 특징

- 한번 안치로 일체 관리비 없이 영구히 모십니다.
- 영롱한 구슬형태인 자화사리로 부처님 품 안에 안치 합니다.
- 49재, 일일축원 기도, 백중기도, 설, 추석 합동축원 등 스님들의 불공으로 영현의 평안을 빌어드립니다.
- 서울 근교에 위치하여 언제든지 추모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가 있어 가족나들이에도 최적입니다.
- 연화부수형 명당터로 고인의 영현은 평안하며 후손들은 반드시 발복할 것입니다.

추모불사 서울사무실 대표전화 02-560-3421~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 상록회관 306호